

시즌3 - 5호 | 시편 96 ~ 115편

PEACE CHURCH

HAPPY MEAL K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 입니다.

해피밀 시즌3 - 5호를 발간하며,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시다.

샬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깊고 짙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우리들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들의 길을 막고, 더욱 깊은 절망의 그림자로 이끌어 갑니다. 빛을 잃은 우리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영원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빛이 비치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던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사 밝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에는 처연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에 뿌리를 박고 굳게 서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밝은 빛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피밀 5호를 통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밤을 빛으로 가득 수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0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4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5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6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우리에게 오신 언약궤의 주인**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성공한 후에 지은 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위는 곧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같았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성공하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금과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찬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그들과 함께 뒤흔들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예배로부터 수십 년 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둥니다.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두 번 다시 왕이나 일반 백성에게 공개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이 기쁨은 누구에게든 지 주어집니다. 그가 왕처럼 높은 직위를 지닌 사람이든, 아니면 낮은 일반 백성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의 이동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음을 보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비해,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고, 그 틈 너머로 언약궤의 주인께서 자신의 성령을 온 백성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동행은 그 자체로 그의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시편인가요?

Q.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을 핍박하는 악인”의 존재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0절은 다소 의미심장하게 느껴 집니다. 나의 신앙을 위기로 몰아가는 자들 앞에서 굴하지 말고, 또한 그들의 편으로 돌아서지도 말고, 끝까지 네 길을 걸어 가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마치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위기로 불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이 나를 총동하거나, 위협하거나 혹은 회유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 하나만으로 견뎌내라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힘은 조금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이는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믿음 하나만으로 견디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또다른 선물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우리에게 또다른 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기쁨입니다. 즉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악인을 눈앞에 두고서 그저 울분을 억누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이길 정도로 충분한 빛과 기쁨 가운데 사로잡힐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 앞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그분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으시는 빛,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비추시고, 마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마치 마귀의 모든 유혹과 핍박 앞에 당당히 승리하신 당신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 하나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통해 핍박과 고난 앞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Q.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7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9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수능보다 중요한 시험**

곧 수능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많은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들이 과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낮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반면에 시험이 끝난 후에는 커다란 해방감을 느끼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특히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종의 시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험의 정체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은 곧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순전하고 엄격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요구가 사람에게에는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누구도 풀 수 없는 불수능보다 말입니다.

역사상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요구를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점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십니다. 이로써 모든 신자는 가장 중요한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날은 이제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는 소망의 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판자와 심판 날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화자처럼 곧 올 심판의 날을 고대하십시오.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날보다 큰 소망의 날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수능이나 그외 중요한 시험에서 좌절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 때 여러분이 받은 점수는 몇점이었나요?

Q.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점을 주시기 위해 겪으신 아픔과 기쁨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6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시니이다 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하나님의 질문, 우리의 응답**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점에 관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은 죄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자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 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많은 복을 누리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자신의 죄로 인해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서로 상충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면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날에 받을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형벌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갚으시는 분이기도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의 무게는 가볍습니다. 다만 그분을 믿고 내 죄가 씻음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증거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믿느냐?"라고 매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물음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물으시는 대로, 주께서 행하신 대로 갚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갚음'으로 이해한다면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다 움켜쥘 수도 없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가요?

Q.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한 대로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니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를 선편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감사함으로

오늘 시편을 다 읽어보십시오. <감사함으로>라는 유명한 찬양이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과 가사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봅시다. 화자는 ‘그의 문’과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자행한다면 죽임을 당하거나 갇히거나 혹은 쫓겨납니다. 따라서 왕궁에 들어가는 일은 일종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은 대개 왕의 허락을 통해 초대를 받았거나 왕의 가족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 특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신 왕의 궁전에 들어가는 특권이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오늘 시편은 ‘공예배’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말인즉슨, 과거에 이 시편을 노래하던 수많은 사람은 **예배 시간을 통해 특권의 실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공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감격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끝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라는 유명한 찬양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만 호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혜는 지성과 인격 모두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를 점차 왕궁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의 영계서 모든 신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왕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공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함을 찾기 어렵다면,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아 오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왕의 궁전에 들어가는 일은 누구에게만 허락되나요? 내게도 그럴 자격이 있나요?

Q.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온 가족 <시편 100편> 묵상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시편 100편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2. 시편 100편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금요일 해피인사이드'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시편 100편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1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2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3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4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5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6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7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와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찬양합니다(1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과 정의를 완성한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삶은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을 남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2절).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은 바로 악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3-5절 말씀에서 다윗은 멀리해야 하는 다섯 가지 악을 언급하며 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배교한 자들과 가까이하지 않으며, 본인의 악한 마음에서 떠날 것이며, 말로 남을 헐뜯는 자들을 멸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기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봅시다.

Q.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쏙 같이 타음이니이다 4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5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8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9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0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11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고난이 닥쳐도 주님 안에 거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읊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고(1절), 나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해달라 애원할 수 있습니다(2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고통을 다섯 가지로 언급합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3절), 풀과 같이 시들어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삶(4절), 육체적 고통(5절), 고립되고 외로운 삶(6-7절), 그리고 마지막은 적들의 조롱으로 괴로워함을 토로합니다(8절). 시인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옳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단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바로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지합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면,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됨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에게 주어진 고난 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Q.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강한 자로 세우시길 원하시기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더욱 가까워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와 천사들이
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와 지으심을 받
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나의 한계를 인정함

시인은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1절). 들의 풀, 그리고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들에 있는 풀과 꽃은 다음날 시
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 계획하고 있는 것, 결국 다 한순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각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며 영원합니다(17절). 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은혜는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의 것입니다(18절).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
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주적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19-22절).
들풀이나 꽃과 같은 우리 삶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한계에 맞춰서 하나님을 한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Q.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하나님은 그 상상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그릇에 주님을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2 주께서 옷을 입을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3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6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7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렛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0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만물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으며,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며, 누구의 자녀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낙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용기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경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졌으며, 물은 이제 정해진 곳으로만 흐르고, 또 고여야 하는 곳에만 고이게 되었습니다(9절).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혼돈 또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에 질서를 정리해 주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피조물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돌보십니다(11-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못 본 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관심을 가지시고 늘 혼돈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그분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Q.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특히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4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5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6 7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진정한 감사와 자랑**

감사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1절). 또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3절).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 자랑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랑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랑은 내가 진짜 좋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5절). 지금 당장 내 삶의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약속은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않습니다(7절).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Q.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늘 자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뿐입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102편>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시편 102편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알아가요.



36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38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39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4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41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42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43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4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낙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얼마 전 어와나 클럽에서 아이들이 포스터 한 장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포스터의 주제는 '낙태반대' 포스터였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하루 낙태 건수에 대한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명의 아이가 낙태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무려 하루에 3,000명의 아기가 낙태를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또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는 '낙태'입니다. 낙태 찬성론자는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낙태하기 원하는 여성에게 낙태는 권리가 되고,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에게는 낙태는 죄가 되는 작태를 보면, 한 생명의 주도권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무죄한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3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단계를 거듭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가 점점 자라고, 그 죄악의 끝판왕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죄한 아이를 죽이는 행태라고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8:4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살인행태'가 문화와 유행과 사회적 이슈를 타고 자연스럽게 합법화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러한 우상의 행위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죄한 생명을 죽이는 이 어른들의 강포한 단결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위해 무죄한 생명을 낙태한다면, 그 자는 사람다움을 이미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한 무도한 마음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올무가 될까요? 또한 하나님은 무고한 피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3-4절 말씀과 같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낙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성경에 근거하여 정리해보세요.

Q.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여호와와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43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 보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오늘날 우리는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도서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줍니다. 유튜브의 영상 매체는 어려운 이론도 영상기법과 이미지들을 통해 쉽게 우리의 논리를 간지럽혀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쉽게 얻은 정보는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이해가 아닙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잠시 논리를 간지럽힌 자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글, 난해한 문장들을 검색하며 오랫동안 숙고하여 얻어낸 정보는 우리의 머리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에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숙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글 읽기를 통해 우리는 저자와 만나게 됩니다. 저자의 문체, 문법, 언어의 형태, 어순들을 보며 저자의 인격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 속에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의 이해를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독자들에게 이러한 '숙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깨달으리로다'라는 말은 '깊이 고민하고, 고려하고, 숙고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인혜)세드, 언약적 사랑,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변치 않고 지고지순하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함)하심은 결코 순간 빠른 정보습득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 역사 속에 진행된 그 일들을 찬찬히 지켜볼 때에 진정한 앎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과 심지어 불신자들도 '신은 인자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정말 얇은 수준입니다. 그 사랑을 단순화하여 하나님께 불손히 따지는 행위는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숙고 해보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시편 107편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필사도 좋은 방법이며, 여러번 다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Q. 인자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1 하나님이며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 비파야, 수금아, 깎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4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6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7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시험이 들 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는 다윗의 찬송 시이며 그 이름은 '승리의 기도'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건대, 지금 다윗의 전세는 밀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수세에 몰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아닌가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새벽'에 비파와 수금을 들어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2절). 새벽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새벽은 기습하기에 좋은 시간이고, 적들의 기습을 받기에도 좋은 시간입니다. 더욱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시간에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수세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과,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얄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에 대한 피상적이지 않고, 깊은 지식이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신 제프리 와이마 jeffrey Weima 교수님은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고, 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근거 삼아 그 하나님이 '슈퍼 슈퍼 파워(능히)'의 하나님이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수세에 몰린 자신을 '능히' 구하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7~9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며, 새벽에 찬송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Q. 에베소서 3장 14-21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시109:1-10] 1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옵소서 2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4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원수를 대하는 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9편은 읽기가 매우 어렵고, 조금은 거북하며,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적나라합니다.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좀 선을 넘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 아니었던가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할 것을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지금 적나라한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기자의 저주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시편기자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그저 기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심판의 주권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보응을 우리 스스로 해선 안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원수들을 위해 '선을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벧전 2:20)"라고 말하였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악한 자와 불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자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심으로 욕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과부가 되며, 고아가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살 길이 열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따라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으신가요?

Q. 하나님의 원수되어 저주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새겨봅시다.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
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
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
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 못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
며 7 길 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원 목사 인생의 지혜

우리는 앞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무지 결합될 수 없는, 또 인간의 이해와 지식 속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 가지가 한 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적 시입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주'는 신약성경의 조명 아래에서 볼 때 분명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1-2절 말씀을 보니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시며, 주의 원수들을 강력한 권세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되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은 곧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은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이였습니다. 그는 병자들의 환부를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복지정책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왕의 통치와는 다른 매우 섬세하고 배려가 많으며 부드럽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제사장'과 '왕'은 구약 성경에서는 결코 겸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인하면서 부드럽기 어렵고, 카리스마 있으면서 달콤하기는 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 두 직분은 각자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자이시자, 따뜻한 섬김의 종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입성이라는 것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백마나 큰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라는 겸손한 말을 타고 오십니다.

조나단 애드워즈는 자신의 설교 <그리스도의 탁월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양한 탁월함이 훌륭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공부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다양한 탁월함의 결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분을 만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나고 그 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왕되심과 제사장되심이라는 이 놀라운 결합을 우리는 느끼고, 누리며 그제서야 감각적으로 마주하며 사귄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예수님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Q. 오늘도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 분과 함께 사귀고 하루가 끝날 때 그 분을 고백하는 글을 적어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110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시편 110편,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시편 110편 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BINGO! 빙고타임! 시편 110편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자!

1. 11월 22일 해피밀을 읽어주세요.

2.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해 보세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 느껴지는 색깔,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나는 노래 등등을 물어보며, 우리 아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가 보아요.

3. 부모님도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마지막에 발표하며, 예수님에 대한 부모님의 고백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공의이며, 사랑이신 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강인하셔서, 어머니와 같이 섬세하신 분.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위엄 있으시나 어린양과 같이 순전하신 분과 같이 부모님의 삶에서 경험했던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경을 가까이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5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6 그가 그들에게 못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7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8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 물건 한 번 볼래?, 지금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야, 이번에 사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꼭 사!’ 물건이 좋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111편의 저자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2, 3절에는 ‘행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들은 바로 출애굽, 죄인을 수령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그의 백성들을 보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온 세계 가운데 알려졌습니다. 온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모두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만족과 기쁨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봅시다.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이다 4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이다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이다 7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이다 9 그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10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좋은 관계**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신령한 복들이 주어집니다.

시편 112편의 저자는 1절에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는 행복한 인생들이 누릴 구체적인 복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손들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은 이 땅에서 누릴 가시적인 모든 복을 의미하고 있고, 공의는 비가시적인 모든 복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들은 가시적, 비가시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정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에도 빛을 받아 살아가며, 잘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참으로 흉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의인의 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비록 우리 삶에는 흑암이 존재하고, 우리를 흔드는 이들, 흉한 소문들이 난무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부모님(혹은 친구)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Q.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1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 2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4 여호와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수준

누군가를 가르쳐보신 적이 있나요? 잘 가르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과 그에게 맞는 교수법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2-3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무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즉 모든 피조물은 각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받기에 참으로 높이신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기시며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이해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이해하거나 줄 수 있는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베푸실 마음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지 더미와 같이 형편없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던 여성들, 심지어 임신하지 못한 여성들까지도 돌보시고 즐겁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는, 더 대단한 분이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낮아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Q. 상대방을 위해 수준을 낮출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2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3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4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5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6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은 어찌함인가 7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오늘 주어지는 확신**

과거를 회상하며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와 상황들은 우리를 멈춰 서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릴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았나요? 승리했던 경험은 패배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줍니다.

시편 114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3절에서 바다는 홍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두려움 가운데에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요단의 물이 멈춤을 통해 홍해의 기적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땅한 확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산과 땅, 반석도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참 소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는 단순히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재가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과거의 경험으로 확신을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

Q. 오늘 우리를 확신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 어찌하여 못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 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 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 너희는 천지 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6 하늘은 여호와와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땅에서 하늘로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을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을 향하여 건물을 짓습 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 너머를 탐험하기 위해 우주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늘 너머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끝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우주 너머의 세계 또한 감 히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1-2절을 통해 전쟁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패배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 고 살아가며 원수가 조롱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 살아계십니 다. 모든 우상은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말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실제로 역사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두게 해달라고(1절) 간청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15절). 다스리고 경작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 가치로 패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 시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로 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이 땅의 가치로 인해 실패를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Q. 예수님께서도 실패를 경험하셨지만, 이내 부활의 승리로 누리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 115편> 먹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 2 어찌하여 못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
까
-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 8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 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
로다
- 10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
패시로다
-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 12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
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 13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을 주시리로다
-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15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 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 17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
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 18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E-mail peacechurch@gmail.com

A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수원평안교회 **Homepage** www.peacechurch.kr